



김제시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 조성 완료

김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 완료했다.

새롭게 조성된 미디어 창작공간은 김제시립도서관 4층 디지털실 내에 카메라, 프롬프트, 마이크 등 각종 영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췄다.

시설의 이용은 우선 전화 예약이나 직접 4층 디지털실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편집 및 영상촬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김제=최창용 기자



김제시가 시립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했다. 사진은 '나는야 마래 크리에이터' 강좌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

“미디어 제작 관심 있는 시민 모여라”

김제시립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 조성
예약 후 시설 이용 가능... 다양한 미디어 교육도 마련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억원(국비·시비)의 예산으로 김제시립도서관 4층 디지털실 내에 카메라, 프롬프트, 마이크 등 각종 영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춘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 완료했다.

시설의 이용은 우선 전화 예약이나 직접 4층 디지털실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편집 및 영상촬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초등생을 위한 '나는야 마래 크리에이터' 강좌를 시작으로 학생, 시민 대상의 개인 영상 제작 등의 기회 제공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서관이 지식 정보 전달과 휴식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등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김제 시민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무 <g2@dkumnet>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 '문 열어'

김제시, 총 1억 투입 영상·편집 장비·방음시설 갖춰
학생·시민 대상 개인 영상 제작 등 미디어 교육 마련

김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억원(국비·시비)의 예산으로 김제시립도서관 4층 디지털실 내에 카메라, 프롬프트, 마이크 등 각종 영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물론 방음 시설을 갖춘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 완료했다.

시설의 이용은 우선 전화 예약이나 직접 4층 디지털실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편집 및 영상촬영 공간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초등생을 위한 '나는야! 미래 크리에이터' 강좌를 시작으로 학생, 시민 대상의 개인 영상 제작 등의 기회 제공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장은 "도서관이 지식정보 전달과 휴식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등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며, 김제시민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김정대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 조성 완료

김제시립도서관(관장 소연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2년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억원(국비·시비)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김제시립도서관은 이 예산을 투입, 4층 디지털실 내에 카메라, 프롬프트, 마이크 등 각종 영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춘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 ON을 조성 완료했다.

시설의 이용은 전화 예약이나 직접 4층 디지털실 내에 신청서 작성 후 편집 및 영상촬영 공간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 3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초등생을 위한 '나는야! 미래 크리에이터' 강좌를 시작으로 학생과 시민 대상의 개인 영상 제작 등의 기회 제공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연숙 관장은 "도서관이 지식정보 전달과 휴식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등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김제시민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